“참성품 보고 대자유인 되시기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大抱沙界非爲有〈대포사계비위유〉요
細入微塵豈是無〈세입미진기시무〉리요
昔日靈照親携處〈석일영조친휴처〉에
明月淸風 五湖〈명월청풍편오호〉로다.

크게는 사계(沙界)를 포용함이나, 있음이 아님이요. 가늘기는 티끌 속에 들어감이나, 어찌 이 없으리요. 옛적에 영조(靈照)가 친히 잡은 곳에 밝은 달, 맑은 바람 오호(五湖)에 두루함이로다.

금일은 또 다시 동안거 해제일이라. 삼동구순(三冬九旬)의 결제(結制)를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어언 해제일을 맞이함이라.

이처럼 세월은 쏜 화살보다 빠르고 손가락을 퉁기는 것보다 빠르니 인생도 또한 그러해서 어느 결에 칠십이 되고 팔십이 되어 병고가 닥쳐오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때는 누구라도 후회하지 않는 이가 없으니 해제일인 금일 대중 모두는 다시금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 지를 살피고 살펴야 할 것이로다.

수행하는 이들은 세속의 즐거움은 뒤로하고 감상적인 정리(情理)는 멀리해서 오직 끝없이 반복되는 이 생사윤회를 벗어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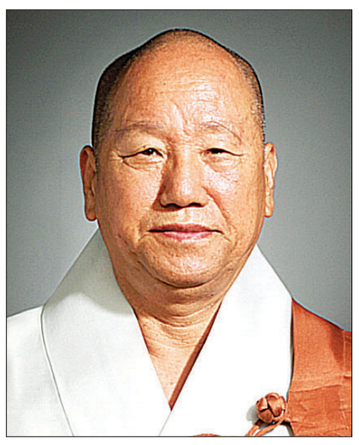
중생들은 숙생(宿生)의 습기(習氣)와 업식(業識)이 수미산과 같아서 간화참선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므로 조석(朝夕)으로 대오견성을 발원하고 구경각(究竟覺)에 이를 때 까지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철두철미한 신심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마음으로 화두를 챙기고 의심해야 한다.

참선은 좌복에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고 오고하는 일상생활 가운데에, 각자의 일을 하는 가운데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화두를 챙기고 의심하고 챙기고 의심하여 하루에도 천번 만번 하다보면 화두가 무르익어 몰록 진의심에 들게 된다.

이때는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잠깐 앉아 있어도 밤낮이 가고 일주일이 가고 몇 달이 가버려서 시간도 잊고 공간도 잊고 외부 인식도 잊어버리는 가운데 화두만이 성성(惺惺)히 시냇물이 밤낮으로 쉼 없이 흐르는 것처럼 끊어짐이 없이 이어가다 홀연히 보는 찰나에 듣는 찰나에 화두가 타파되어 참성품을 보게 된다.

그러면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천불만조사(千佛萬祖師)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장부가 되어 천하를 횡행(橫行)하는 대자유인(大自由人)이 되는 것이다.

석일(昔日)에 용아(龍牙) 선사께서 처음 취미



(翠微) 선사를 참배하여 물으시기를,

“어떤 것이 달마(達磨)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시니, 취미 선사께서 답을 하시기를,

“선판(禪板)을 나에게 가져 오너라.”

하셨다.

용아 선사께서 선판을 가져와 취미 선사께 드리니, 취미 선사께서 잡아서 문득 때리니, 용아 선사께서 말씀하시되,

“도안(道眼)이 밝기는 하나, 아직 조사의 뜻은 없도다.”

〈중략〉

산승이 28세 때에 묘관음사에서 향곡(香谷) 대선사를 모시고 지냈는데, 견처(見處)가 나서 게송을 지어 바침이라.

這箇 杖幾人會〈자개주장기인회〉아?
三世諸佛總不識〈삼세제불총불식〉이라.
一條 杖化金龍〈일조주장화금룡〉하여
應化無邊任自在〈응화무변임자재〉로다.

이 주장자를 몇 사람이나 알꼬?
삼세 모든 성인도 알지 못함이라.
한 막대기 주장자가 금빛 용이 되어
응화(應化)함이 가없이 자재함이로다.

향곡 선사께서 보시고 즉시 물으시기를,

“너 문득 용 잡아먹는 금시조(金翅鳥)를 만나서는 어찌 하려는고?”

“몸을 굽히고 당황하여 세 걸음 물러갑니다.”

하니,

“옳고, 옳다”

하시다.

석일(昔日)에 마조(馬祖) 선사 회상(會上)에서 마조 선사께서 법상에 오르시어 법문을 하시기를,

“금시조라는 새는 구만리 장천(九萬里 長天)을 날아다니다가 배가 고프면, 두 날개로 바닷물을 내리쳐 바닷물이 사십 리가 쪼개지는 위력을 가진 금시조라. 모든 대중은 문득 금시조를 만나면 어찌 하려는고? 대답을 해보라.”

하니,

등은봉(鄧隱峰) 스님이 가사(袈裟)를 둘러쓰고 법상 밑으로 들어감이로다.

부처님 출세시에 용의 무리들이 모여와서 부처님께 애원하기를,

“대자대비(大慈大悲)하신 부처님이시여! 우리 용의 무리들이 금시조에 다 잡아 먹히게 되니, 크나큰 자비로써 우리 용의 무리를 구제하여 주옵소서.”

하니, 부처님께서 가만히 관하시다,

“방편이 있나니.”

하시고는, 부처님 수하신 가사(袈裟) 홀을 풀어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가사 홀을 가지고 있으면 금시조에게 잡혀 먹는 일은 없으리니 잘 간직하라.”

하셨다.

불(佛) 위신력이여! 개천개지(蓋天蓋地)로다.

부처님의 위대한 법력이여!
하늘을 덮고, 땅을 덮음이로다.

“절대 善 마음 깊이 새기라”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모든 악을 짓지 말고(諸惡莫作), 선을 받들어 행하며(衆善奉行),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自淨基意)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是諸佛敎).

이는 도림선사(道林禪師)가 당나라 시인이자 정치가 백거이(白居易)에게 누구나 알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착한일이지만, 그것을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깨우침으로 그를 불자의 길로 이끌기도 했다는 〈법구경〉에 나오는 칠불통게(七佛通偈)입니다.

성경 창세기에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림이라”하였고, 명심보감(明心寶鑑)에는 “선한 일을 보거든 목말라 물을 갈구하는 것 같이 하고(見善如渴), 악한 말을 듣거든 귀머거리 같이 하기를 주저하지 말라(聞惡如聾).”는 금언(金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성인(聖人)들께서는 올바르고

착함의 도덕적 기준인 선을 추구하고, 악을 멀리하라는 공통된 말씀을 하였는데, 그것은 절대 선은 뇌하수체전엽(腦下垂體前葉)의 호르몬과 같이 팽창하고 널리 퍼져나가는 기운으로 절대 악을 수용하고, 융화(融和)시켜서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깨달음을 구하려는 수행자라면, 마땅히 대보리심(大菩提心)을 내어서, 선지식(善知識)을 가까이 하고, 인욕(忍辱)과 유화(柔和)를 닦아 번뇌를 모두 끊은 고요한 경지(境地)에 안주하라는 〈보살수행사법경(菩薩修行四法經)〉의 말씀과 같이 선행(善行)을 닦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수행하는 동안 무수한 장애에 부딪히게 마련인데, 이러한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위로와 격려해주며, 수행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 신심을 일으키도록 도움 줄 수 있는 올바른 어진 선지식의 가르침인 선을 행하면, 자리(自利)와 이타(利他)의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의 조화와 여유가 생기며, 번뇌를 끊고, 고요한 경지에 이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금일 자자(自恣)를 진심으로 한 수행자라면, 다음의 경구(警句)를 항상 마음다짐의 길잡이로 깊이 새겨서 실천하기 바랍니다.

信心萬善本(신심만선본)이요 和合萬福源(화합만복원)이라. 精誠萬德宗(정성만덕종)이요 孝敬萬人道(효경만인도)니라. 심심은 모든 착한 근본이요. 화합은 모든 복의 근원이라. 정성은 모든 덕의 으뜸이 되고, 효도와 공경은 모든 수행자의 도리이니라.

“생사심 잊어야 참다운 해제”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

사상절처현보제(四相絶處現菩提)하고 오온공시도군미(五蘊空時度群迷)로다. 방복진주암중옥(蚌腹眞珠岩中玉)도 탁마전위합명기(琢磨轉位合明機)로다.

사상이 끊어진 곳에 보리가 나타나고 오온이 공했을 때 모든 미혹 제도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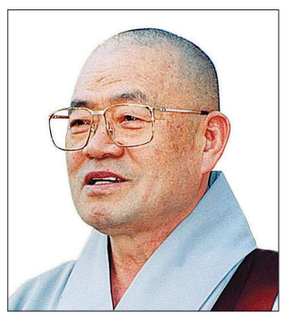
조개 속의 진주나 바위 속의 옥도 갈고 닦아야만 좋은 보배 이루는 도다.

감문대중(敢問大衆)하노니 여법수행자(如法修行者)는 발명진성(發明眞性)하고 장엄불토(莊嚴佛土)하니 악재기중(樂在其中)이로다.

득무애자재자(得無碍自在者)는 차도일구래(且道一句來)하라!

양구(良久)에 “일갈(一喝)”운(云) 저 변나변(這邊那邊)에 응무소휴(應無所虧)하야사 시득(始得)다.

감히 대중에게 묻노니 법다히 수행한



자는 진성을 발명하고 불국토를 장엄하니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도다.

걸림 없이 자재함을 얻은 자는 또 한 마디 일러라!

잠깐 있다가 “할”을 한번 하고 이르시되 자변과 나변에 이지러진바가 없어야사 비로소 옳다.

부운수행각(夫雲水行脚)은 요달대사위본(了達大事爲本)이요 부재결제해제지한사(不在結制解制之閑事)니 막작가두지용종객(莫作街頭之隴踵客)이어다.

자불수도(自不修道)하고 역뇌타인(亦惱他人)하면 기비대착(豈非大錯)가 성성착성성착(惺惺着惺惺着)이어다.

대저 운수행각은 일대사를 요달함을 근본으로 삼음이요 결제를 해제하는 한가한 일에 있지 아니함이니 거리에 할 일없이 돌아다니는 나그네가 되지 말지어다.

스스로 도를 닦지도 아니하고 또한 다른 이를 번거롭게 하면 어찌 크게 그르침이 아니겠는가? 정신 차려 살피고 살필지어다.

일념돈망생사심(一念頓亡生死心)하면 차즉명위진해제(此卽名爲眞解制)로다. 지남지북무괘애(之南之北無 碍)하야 쾌활자재자유인(快活自在自由人)이로다.

한 생각에 몰록 생사심을 잊으면 이것이 곧 이름이 참다운 해제로다.

남으로 가고 북으로 감에 걸림이 없어서 쾌활자재한 자유인이로다.

“복 짓고 공부해야 원만한 法 성취”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결시(結時)에 결무결(結無結)하고 해시(解時)에 역무해(亦無解)로다. 결해구분명(結解俱分明)하면 행부지행(行不知行)하고 좌부지좌(坐不知坐)하여 처처진무애(處處眞無碍)로다.

맺을 때는 맺는 것이 없이 맺고 풀 때에 푸는 것이 없음이로다. 맺고 푸는 것을 모두 분명히 하면 가도 가는 것이 없으며 앉아도 앉는 것이 없어서 곳곳에 참으로 걸림이 없도다.

〈중략〉

사자굴중무이수(獅子窟中無異獸)하고 상왕행처절호종(象王行處絶狐踪)이라. 상설소래시방춘(霜雪消來十方春)하니 만화방창조남남(萬化方暢鳥n)이로구나. 사자굴 속에는 다른 짐승이 없고 코끼리 가는 곳에 여우 발길 끊어졌네. 서리와 눈 녹아 어디나 봄이 되니 날씨 좋아 만물이 생장하고 새들이 노래하네.

본지가풍(本地家風)에 있어서는 결제니 해제니 할 것이 없지만 깨닫지 못한 본분납자(本分衲子) 입장에서는 해제라 해서 자유스럽게 쉬라는 뜻이 아닙니다. 〈증도가〉에, “유강해섭산천(遊江海涉山川) 하여 심사방도위참선(尋師訪道爲參禪)이라.” 강과 바다에 노닐고 산과 개울을 건너서 스승을 찾아 도를 물음은 참선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설봉(雪峰) 스님은 당나라 때 스님으

로 덕산(德山) 스님의 제자인데 12세 때 아버지를 따라 옥간사(玉澗寺)에 갔다가 그길로 출가를 하였습니다. 스님께서는 공부할 적에 피나는 정진(精進)을 하였다고 합니다. 세 번 투자산에 가고 아홉 번 동산에 갔는데, 그것은 삼도투자구지동산(三到投子九至洞山)이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동산과 투자와의 거리가 오륙천 리나 되는 먼 길임에도 세 번이나 투자산 대동 선사와 아홉 번이나 동산의 양개 선사를 찾아가 법을 묻고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멀고 먼 길, 험하고 높은 산일지라도 멀고 험하다고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도를 위하여 몸을 아끼지 않고 부지런히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설봉 스님은 암두(巖頭) 스님, 흠산(欽山) 스님과 함께 세 분이 도반이 되어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설봉 스님은 어디를 가든지 공양주만 하여서 쌀이는 조리를 늘 가지고 다녔고, 암두 스님은 어디를 가나 채소밭을 가꾸는 원두(園頭) 소임을 맡아 괭이와 호미를 늘 가지고 다녔으며, 흠산 스님은 어디를 가나 바느질만 해서 실뭉치와 바늘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셋이서 어느 처소에 가든지 설봉 스님은 공양주를 맡아 대중의 공양을 지어 올리고, 암두 스님은 채소를 가꾸어 대중의 반찬을 해올리고, 흠산 스님은 온 대중의 바느질이란 바느질은 전부 도맡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셋이 도반이 되어 다니면서 공부를 하여 마침내 세 분이 다 공부를 성취하여 후세에 모범적인 대도인(大道人)들이 되었습니다.

선종사에 있어서 최초로 대중을 많이 거느린 스님이 설봉 스님인데, 항상 1천5백 명 이상의 대중을 거느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설봉 스님께서 1천5백 명 대중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1천5백 명 대중이 모두 나의 이 조리 속에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무슨 뜻이냐 하면 복혜쌍수(福慧雙修)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도 짓고 공부도 해야 원만한 법(法)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선사(先師) 스님들께서는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살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르게 공부가 될지 반성(反省)해야 될 일입니다. 수미정상무근초(須彌頂上無根草)는 불수춘풍화자개(不受春風花自開)로다. 수미산 꼭대기 뿌리 없는 풀은 봄바람이 아니라도 활짝 피었네.

“천진의 눈으로 모든 것 품기를”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大悲千眼淨無瑕(대비천안정무하)여
特地拈花大老婆(특지염화대노파)라
摩竭昔年迦葉笑(마갈석년가섭소러)니
現今誰是好禪陀(현금수시호선타)리오
대자비 천안은 청정해 티가 없음이여!
특별히 간절한 노파심으로 꽃을 드셨네. 마갈의 영산회상에서는 가섭이 미소 지었다는데 지금은 누가 있어 선타객이 되겠는가?

부처님께서 육년 수행정진을 통해 한 가지를 깨달으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선지식들에게 묻고 배워도 풀리지 않는 한 가닥 의심은 해결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드디어 생사를 건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샛별을 보고 생사근본의 이치를 깨우치셨으니 그날이 납월 팔일입니다. 이날은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무명 사슬에서 벗어나게 된 부처님의 해제 날입니다. 이 자리의 수행자들에게는 정월 보름 오늘이 바로 해제 날입니다. 각자가 화두 하나를 굳게 들고 망상의 유혹과 씨름을 했습니다.

근원도 없는 번민은 까마득한 언덕도 되었다가 깊은 수렁도 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땐 잠깐의 희열을 느끼게 하다가 순식간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념의 골짜기로 몰아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겨울의 모진 추위를 맨 몸으로 견뎌 낸 소나무처럼 그 절개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오직 자신들만이 알 것입니다. 결판을 낸 사람은 청량산을 먹은 것처럼 가슴속이 시원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시가 걸린 것 같을 것입니다.

그 옛 날 영산회상에서 부처님이 연꽃을 드심에 가섭이 미소 지었다고 하지만 이것도 역시 다른 이의 분상일 뿐입니다. 반드시 자신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스스로 머리를 끄덕일 때 자신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과거를 준비한 선비가 장원급제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수행자에겐 견성이 장원급제요 해제입니다.

오늘 대중은 스스로 머리를 끄덕이는 해제 날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여긴다면 각오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수행자가 용맹심을 내어 온 몸을 불구덩이에 던지려 한다면 먼저 높고 험한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화두를 드는 것은 인내하며 정상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줄이요 자신의 모든 것이라는 마음으로 올라야 합니다. 망설이거나 멈춰서면 번민의 두려움은 더욱 거센 불길이 되어 치솟아 오릅니다. 끝까지 올라가서 일념의 화두가 견고한 갑옷이라는 믿음이 섰다면 서슴없이 뛰어내려야 합니다.

소요자재는 스스로 경험하는 것이지 누구에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총명함을 믿고 이치만을 따져서 이루어지는 공부가 아닙니다. 정진은 중생이라는 깊고 깊은 우물을 길어 올리는 두레박 끈입니다. 끝없는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수행자가 정진의 끈을 굳세게 하지 못하고서는 헛된 말장난에 불과 합니다. 시비분별을 내려놓고 한 걸음씩 다져 나가야 합니다. 어제까지는 무명의 눈으로 저 허공을 바라보며 공허를 느꼈다면 오늘은 천진의 텅 빈 눈으로 모든 것을 품어 안는 광활함을 보는 날이어야 할 것입니다.

十方同聚會(시방동취회)여
皆皆學無爲(개개학무위)라
此是選佛場(차시선불장)이니
心空及第歸(심공급제귀)어다
시방의 대중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모두가 무위의 이치를 파고드네.
이 자리는 부처를 가려내는 곳이니
마음을 비워 급제해 돌아갈 지어다.